

brilliant memories: artwork by 이용백

일요일의 택배



포터를 위한 기념비 · 엔젤 솔저

이용백의 <포터를 위한 기념비>는 현대자동차 99년 포터를 이용해서 10년간 택배업 경력 이 쌓인 고객을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. 사연을 전한 고객은 시간을 다투는 배달의 특성상, 차 안에서 식사도 해결하고, 차 안에서 음악도 들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차와 일심동체가 된 고객의 사연을 투영하기 위해 이용백은 차체를 분해시킨 후 기념비의 모양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내놨습니다. 해체된 차량의 모습을 보여주는 <포터를 위한 기념비>는 원래 차량의 본 모습을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, 차와 친숙한 차주인 만큼은 쉽게 그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처럼 특정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위장을 이용백은 작업에서 자주 구사해왔습니다.

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 출신 이용백은 이미 위장의 의미를 작업 언어로 수차례 적용시킨 바 있습니다. 그의 대표작 <엔젤 솔저>에 등장하는 군인도 개인화기인 총 대신 ‘꽃총’을, 사단 마크 대신 컴퓨터 폴더를, 그리고 무엇보다 얼룩무늬 일색인 군복을 눈부실 만큼 화려한 꽃무늬로 변환시켜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.

한편 이용백은 고객 소장용으로 소품 오디오를 제작했습니다. 제작 배경에는 “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달리면서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들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했다.”는 고객의 사연이 오디오를 통해 실현되도록 한 것입니다. 글 · 반이정



[brilliant memories] 작가 이용백 인터뷰 & 메이킹

사연 소개



저는 택배 기사입니다. 제대 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,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많은 거리를 달렸고, 수없이 많은 짐을 견뎌냈습니다. 그리고 업무량 또한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. 많이 아껴주려 노력했지만 손봐야 할 곳은 많아졌고, 항상 저의 안전이 먼저인 아내의 걱정도 늘어만 갔습니다. 이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

작가 이용백



작가 인터뷰

처음 차를 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. “기계도 사람처럼 사랑하고 예뻐해 주면 네 곁에 오래 있을 것”이라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말이죠. 차 안에서 부부가 함께 노래도 듣고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사연을 듣고 부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멋진 오디오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.

프로필

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대표였던 이용백은 꽃무늬 군복 <엔젤-솔저>로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.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과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

대학교 회화과, 연구 심화 과정 조각과를 졸업 후 지속적으로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화랑의
초대를 받고 있습니다.